

반쪽 정부 ‘開門發車’…MB내각과 ‘어정쩡 동거’ 국정차질

〈개문발차·문 열고 출발〉

여야 힘겨루기 지속 조직개편안 오늘 처리 불투명

일부 각료·비서진 최악뻔 한달간 임명장도 못받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0시를 기해 제18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인수해 법적 임기를 시작했지만 내각조각 구성하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당장, 여야 간의 이견으로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정홍원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부터나 시작될 예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명박(MB) 내각’으로 출발을 하게 됐다.

역대 정부 출범 당시에도 국무위원 인선이 지연되긴 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확정됐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중훈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부 부처 내정자의 경우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인사 청문 요청 이후, 최대 30일 동안 각료가 임명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각료들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형식상의 국무회의는 존재하지만 박 대통령의 중요 현안 처리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새로 개편된 청와대 비서실 직제안도 국무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새로운 직책 내정자들은 당분간 자신들의 공식 타이틀을 갖지 못한 채 기존 직제에 따라 임명돼 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진의 경우 수석비서관만 내정됐을 뿐 산하 비서관 및 행정관 인사는 아직까지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사흘만에 재개했다.

하지만 이날 안에 여야 합의가 발원다면,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등을 거쳐야 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했을 때 26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후 쟁점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IPTV(인터넷TV)와 뉴미디어 관할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여부다.

인수위가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에 대한 규제 권한만 방송위에 남기고 IPTV, 일반 채널사업자(PP), 종합유선방송국(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정책은 미래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인수위 원안 고수를,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내세워 방송 정책의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박근혜 정부의 정상 출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는 지혜를 짜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차를 타고 청와대로 향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 첫 업무는 안보상황 점검

25일 새벽 0시 합참의장과 통화…첫날부터 24시간 강행군

숨가빴던 하루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0시 통치권을 인수받자마자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등 숨가쁜 하루를 보냈다.

첫 업무는 안보상황 점검이었다. 박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에서 0시 정각 합참참모본부에 핫라인을 통해 정승호 합참의장에 전화해 걸어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확인하고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의장을 포환해 전 장병의 노고를 치하한다. 날씨가 추울 텐데 근무하는데 어려움은 없나”라고 격려한 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굳이 대비태세를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은 여러분을 믿는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수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하라인, 즉 군 통신망은 전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현동 사저로 이동하면서 그쪽에 임시로 개설됐다. 박 대통령은 권한 이양 시점에 맞춰 삼성동 사저에 개통됐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전 10시께 삼성동 사저를 나와 환송 나온 동태 주만들과 짧은 시간 인사를 나누며 선물을 주고받은 뒤 23년간 살아온 사저를 떠났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이동, 정부 대표와 현충원 안장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35명과 함께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로 향했다.

취임식을 마친 박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 국민 화합메시지를 전달받는 ‘복주머니 개봉행사’에 참석했으며 이어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의 환영을 받은 뒤 오후 1시30분께 청와대로 들어갔고 오후 1시30분께 청와대로 도착 후 정

홍원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으며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와 박홍렬 경호실장 내정자, 이정현 정부수석 등 수석비서관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접견실에서 여성인 임락 찬나와 태국 총리를 접견한 뒤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과 회동했다.

박 대통령은 오후 4시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취임 경축 연회에 참석한 뒤 다시 청와대로 돌아와 종국의 차기 부총리로 유력한 류연동(劉延東) 공산당 정치국원, 빅토르 이 사예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개발부 장관과 각각 만나 한반도 안보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만찬을 끝으로 취임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국민과 함께 축하”

민주당 “새정부 성공 기원”

여야 축하메시지

새누리당은 25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성실하게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축복 속에 출범하게 된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과정에서 각종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야당의 의견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열린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을 맞아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자제하며 차분한 축하 분위기 속에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

민주당합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 외에는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주요 당직자들은 대부분 취임식 축하 일정으로 일과를 채웠다.

전날까지 청와대 대변인 인선 등에 대해 공세의 날을 세웠던 대변인들도 취임 축하 외에 별다른 비판성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정성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인고의 시간을 지나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에 국민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특수 차량에 전용機·전용 열차 제공

차관급 주치의 2주 한번씩 건강체크

어떤 예우받나

박근혜 대통령은 25일부터 의전·경호상 국가원수로서 예우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박홍렬 청와대 경호실장 내정자가 박 대통령 주변과 사저에 대한 경호권을 인수해 경호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에게는 특수 방호차량인 페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현대차 에쿠스 리무진 등 전용차량이 제공됐다. 또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를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이 박 대통령을 공식보좌하며, 공식 일정은 의전비서관이 챙기게 된다.

미사일 추적 기만장치와 적의선 방해장치 등 각종 특수 장치가 장착된 전용 헬기(S-92)를 탈 수 있다. 물론 ‘공군 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와 대통령 전용 열차도 제공된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주치의가 평균 2주에 한 번씩 건강을 체크해 주며, 서울대 병원 등 국공립 병원의 최고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대통령 연봉은 1억9225만원이다. 연봉제 적용대상이었어서 별도의 수당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602만원씩이다.

여기에 ‘연봉의 급여’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월 320만원)와 급식비(13만원)를 더하면 매달 1930여만원씩, 연간 2억3200여만원이 총보수로 지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公認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 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6기)	광주교육대학교(7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3.8.(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3.9.(토) 09:10 (중급반)	·월·목 아간반 2013.3.4.(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3.7.(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3.9.(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1.24.(목) ~ 3.9.(토)	2013.1.24.(목) ~ 3.9.(토)
수업기간	2013.3.8.(금) ~ 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3.4.(월) ~ 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목요일 아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 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 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투자 하실 분

▶물건 : 경매 진행물건 중 NPL과 특수물건
▶보장 : 등기/근저당 설정
▶자금 : 1억원 이상
▶기간 : 1년정도
▶수익 : 투자 대비 고수익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배우실 분!

▶분야 : NPL과 특수물건
▶시간 : 주1회, 2시간
3개월 과정
▶특징 : 배우면서 투자가능
1인1물건 낙찰보장
▶수강료 : 550만원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환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환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